

# 토론문

## 신 기 준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입니다.

오늘 전력거버넌스 토론회는 전력신사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로 전력시스템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핵심 과제와 거버넌스 개편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VPP의 계통기여도 제고와 AI 기술의 접목입니다.**

현재 우리 전력계통은 분산에너지가 급격히 확산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VPP는 단순히 에너지를 모으는 수준을 넘어 계통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한 소규모 자원들이 전력계통 안정화와 주파수조정 등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AI기술을 활용한 발전량 예측 및 실시간 제어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VPP가 보조서비스 시장이나 유연성 자원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설계하고, 기술적 표준을 확립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 전력시장과의 정합성 확보입니다.**

최근 직접PPA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구역 지정 등 전력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신산업 육성의 기회인 동시에 전력시장운영 측면에서는 새로운 과제입니다. 이러한 장외거래가 확대되더라도 기존 전력시장과의 정합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계통운영의 신뢰성이 저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외거래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계통운영의 안정성과 비용배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전체 전력시장 체계내에서 조화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 **셋째, 전력신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거버넌스가 안정적인 전력공급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거버넌스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간이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전력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활용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확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력신산업의 성공은 혁신적인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만날 때 가능합니다. 거버넌스는 시장의 룰을 정하는 것을 넘어,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설계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의견들이 전력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튼튼한 거버넌스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